

2025. 09. 26.[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총괄)이철호 보좌관(김남근의원실) 010-8268-2752

## 〈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개최... 심야·휴일배송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26일(금) 심야휴일배송 확산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위해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 택배사 택배노동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참여
- 을지로위원회, 심야/휴일 배송에 대한 적정 노동기준을 수립하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택배산업 지속가능발전 해법 모색할 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9월 26일(금) 오전 8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책임의원(손명수, 김남근, 이용우, 이연희, 박홍배, 이훈기), 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택배과로사대책위, 민주노총 택배노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 택배노동자 단체, 한국통합물류협회 5대 택배사(쿠팡, CJ,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사업자단체,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택배대리점 단체),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대화기구 출범은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변화된 택배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발표된 당시 합의는 장시간·과중노동 완화와 산재 예방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심야배송이 보편화되기 이전이었던 탓에 심야·휴일배송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쿠팡을 시작으로 심야배송과 주7일 배송이 확산되었고, 이는 노동환경 악화 및 과로사 등 중대 산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대화기구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적정 노동시간에 관한 의학적

연구와 기준 마련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택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될 때 비로소 소비자 편익도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며, “이제 더 이상 ‘편리한 배송’의 이면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심야·휴일배송 문제를 해결하고 택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